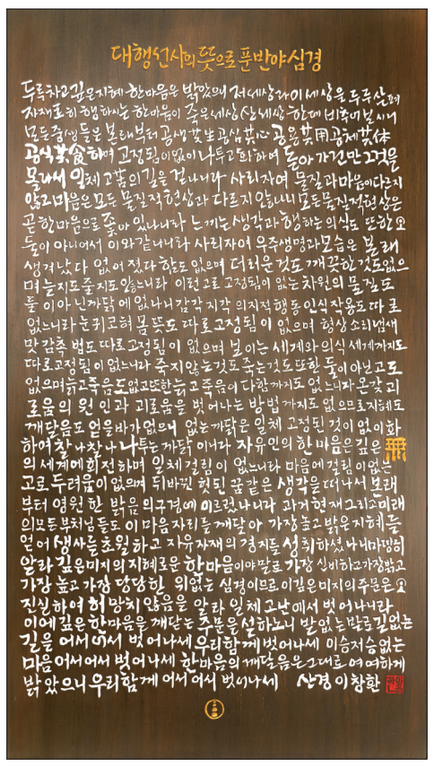
대행선사 가르침, '刻字'로 만나다



이창환 작가의 각자 작품 '대행 선사의 뜻으로 푼 금강경'.

산경 이창환 각자전…3월 29일까지 서울서예박물관서

'뜻으로 푼 반야심경' 등
선사 가르침 담은 21점
사자성어, 경구도 담아내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나무판에 글자나 그림을 새기는 것을 '각자(刻字)'라고 하며, 각자를 하는 장인을 각자장(刻字匠) 또는 각수(刻手)라고 한다. 고려시대 팔만대장경을 새긴 장인들도 모두 이들이었다. 그리 보면 '각자'라는 무형유산은 불교와도 밀접한 인연이 있다.

'한마음 주인공 관법'이라는 생활선 수행으로 중생 교화에 힘쓴 묘공당 대행 선사(1927~2012)의 가르침을 담은 말씀들이 '각자'로 화현했다.

20여 년을 각자 작품에 매진해 온 산경 이창환 작가는 3월 21일부터 29일까지 예술의전당 서울서예박물관 제3전시실에서 '각자(刻字)전'을 개최한다.

'대행 선사의 가르침과 산경의 산책'라는 부제를 있는 만큼 전시회에는 작가 자신의 마음공부와 예술작업이 오롯이 투영돼 있다.

전시에서는 '숨, 쉼, 섬, 샘, 삶' 다섯 가지로 구성됐다. 숨과 쉼에는 '대행 선사의 가르침'을 담은 21점의 작품이 담겼다. 이창환 작가는 부산에서 직장을 다니던 중 부산KBS홀에서 열린 대행 선사 초청법회에 참석한 뒤 곧바로 불자가 됐다. 부산에서 서울로 발령난 뒤에는 안양본원에 다니며 신행생활을 이어갔다.

각자 작품으로 새겨 넣은 대행 선사의 가르침은 평소 작가가 공부하며 마음에 새겨놓은 금구(金句)들이다. '대행선사의 뜻으로 풀어낸 반야심경' 작품은 10년의 세월을 들여 완성한 작품으로, 작가의 깊은 신념과 예술혼을 엿볼 수 있다.

'섬, 샘, 삶'에는 부모님에 대한 추억과 작가가 평소 좋아하는 사자성어 등을 담아냈다. 이는 스스로의 삶에 대한 회고이기도 하다. 실제, '역지사지' 작품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생생하게 되살려냈으며, '시전지' 작품에서는 직장 후배에게 보내는 유쾌한 편지를 담아냈다. '초장골 밤나무'와 '봄'에서는 부모님의 일하는 모습을 생생하게 담아냈으며, '봄밤' '나를 살리는 길'에서는 전통 각자를 현대적으로 융합하여 새로운 예술적 시도를 보여준다.

작품 전반에는 전통 각자를 기본으로 해 음각, 양각, 음평각, 음양각, 복합각 등 다채로운 기법을 시도했으며, 나무판으로 연출이 가능한 현판, 목판, 능화판, 시전판 등 여러 형태의 작품을 통해 전통 각자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형태를 대중들에게 소개하고 있다.

이창환 작가는 "각자를 배우며 잠시 행복한 적도 있지만, 부족한 창의력으로 작업 과정은 매번 고행이었다"면서 "그럼에도 내 작품 앞에서 잠시나마 발길을 멈추는 관람객이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쁘다"고 밝혔다.

국립중앙박물관 사유의 방, 외국인에겐 망상의 방?

특별기고 반가사유상 전시실 영문 안내문 개선을

반가사유상 英안내문 오류 다수
'wandering thought' 망상 의미
사유 아닌 망상 중인 불상 표현
'Time to meditate in silence'
'침묵 속 사유하는 시간' 정확해
英안내문 작품 정확하게 전해야

얼마 전 서울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다.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반가사유상이었다. 국립중앙박물관의 '사유의 방'은 국보 반가사유상 두 점만을 전시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2021년 11월 12일 개관 이후 약 100만 명의 관람객이 방문했다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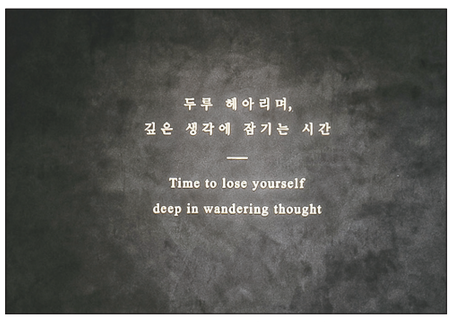
반가사유상을 모신 2층 전시실 입구에 도착하니, 외국인들이 영문 안내 문구를 읽고 전시실로 들어가고 있었다. 호기심에 그 영문 안내문을 살펴보았는데,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에서 이렇게 부정확한 영문 해석을 제공하고 있다니 믿기 어려웠다.

한글 안내 문구에는 '두루 헤아리며 깊은 생각에 잠기는 시간'이라고 쓰여 있었다. 이 문구는 만족스러운 것은 아니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였다. 그러나 영문 해석은 터무니없었다.

'Time to lose yourself deep in wandering thought'(자신을 깊이 방황하는 생각에 잃어버리는 시간)라는 표현은 반가사유상의 본질을 완전히 왜곡하고 있었다. 'wandering thought'는 보통 정신이 산만하게 이리저리 배회하는 '번뇌 망상'을 의미한다.

반가사유상은 이런 방황하는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침묵의 선정(禪定)에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방황하는 망상에 깊이 빠져 있는 모습'은 우리 중생들의 모습이지, 반가사유상과는 거리가 멀다. 반가사유상은 명상 속에서 깊은 사유를 하는 모습으로, 'Time to meditate in silence'(침묵 속에서 사유하는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할 것이다.

반가사유상의 모티프는 어린 시절 싯다르타 태자의 일화에 근거한다. 어린 시절, 그는 부왕을 따라 농경제를 방문했을 때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다. 힘들게 쟁기질을 하는 농부들, 채찍을 맞으며 일하는 소들의 고통, 쟁기질로 땅에서 튀어나온 벌레들, 그 벌레를 잡아먹는



사유의 방 현재 안내 문구. 안양규 교수는 해당 영문 안내문구로 인해 사유가 아닌 망상하는 불상으로 반가사유상을 이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들의 모습이었다. 이를 통해 싯다르타는 생명들의 고통과 삶의 실상을 깊이 관찰하고 그 해결책을 사유하게 되었다. 반가사유상은 바로 이러한 태자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이다.

후에 보살은 고행의 무익함을 깨닫고, 어릴 적 경험했던 선정을 떠올렸다.

"나의 아버지 석가족의 왕이 농경제 행사를 하는 중에, 나는 장미사과 나무의 서늘한 그늘에 앉아 감각적 쾌락의 욕망을 버리고 악하고 불건전한 상태를 떠나서, 사유(vitakka, 尋)를 갖추고 숙고(vicāra, 伺)를 갖추고, 멀리 떠남에서 생겨난 희열(piti)과 기쁨(sukha)을 갖춘 첫 번째 선정(禪定, jhana)을 성취했는데, 이것이 깨달음에 이르는 길일까?"

이러한 성찰을 통해 보살은 고행을 포기하고 선정 수행을 통해 성불하게 된다. 탐욕과 불선법을 멀리하여 제1선정에 입정하여 사유와 숙고를 진행하지만 제2선정으로 진입하면 더 이상 사유와 숙고는 사라지게 된다.

선정은 4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제1선정은 아직 사유와 숙고가 남아 있는 초기 단계다. 그러나 이 사유는 일반인의 사유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 반가사유상은 바로 제1선정에 입정한 모습을 나타낸다. 제2선정에서는 사유가 사라지고 미세한 즐거운 느낌만 남으며, 제3선정과 제4선정에서는 느낌마저 사라져 완전한 평정에 이르게 된다. 제4정에서 지혜를 성취하여 비로소 붓다가 되는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석굴암의 본존불이 바로 이 성불의 모습을 표현한 것이다.

반가사유상의 본질은 번뇌 망상에서 벗어나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상징한다. 이런 점에서 박물관의 영문 안내 문구는 작품의 의미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내외 불교학자에게 자문을 구하고, 영문 표현의 정확성을 외국인에게도 확인받을 필요가 있다.



안양규
동국대 WISE캠퍼스 교수

'양주 회암사지 유적' 우선등재목록에 선정

14세기 동아시아 선종 가람의 전형이라 평가받는 '양주 회암사지 사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가유산청(청장 최응천)은 "지난 3월 13일 개최된 2025년 제2차 문화유산위원회 세계유산분과 회의에서 '양주 회암사지 유적'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우선등재목록으로 선정했다"고 3월 19일 밝혔다.

'양주 회암사지 유적'은 14세기 동아시아에서 유행한 불교 선종의 가람 구성과 배치의 전형을 보여주는 고고학 유적지와 국제 교류를 통해 14세기 회암사의 중흥을 이룬 고승들(지공, 나옹혜근, 무학자초)의 승탑과 비석이 있는 기념물군으로 이뤄져있다. 지난 2022년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록된 바 있다.

우선등재목록은 잠정목록 중 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 및 보호관리 계획 등을 보완한 유산이 선정되며, 향후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에서 진행하는 예비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신중일 기자

사찰음식점 '발우공양' 봄맞이 신메뉴 출시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만당 스님)이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 '발우공양'이 3월부터 향긋한 봄나물을 주제로 신메뉴를 출시한다.

발우공양은 사계절 제철 식재료를 활용해 계절마다 새로운 구성으로 선보이고 있다. 이번 봄에도 겨울 동안 움츠러든 몸과 마음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건강 메뉴를 제공한다.

봄 신메뉴는 선식(禪食), 원식(願食), 마음식(念食), 희식(喜食) 총 4가지 코스로, 코스별로 다양한 조리법의 메뉴를 경험할 수 있다.

선식과 원식은 혹독한 추위를 이겨내고 땅의 영양분을 가득 담은 봄나물을 이용한 죽, 김치, 겉절이, 찜, 무침으로 구성했다. 마음식은 봄꽃전, 봄나물들깨탕을 추가해 싱그러운 맛과 영양을 더했다. 사전예약메뉴인 희식은 봄 기운을 만끽할 수 있도록 봄순튀김, 봄나물만두, 봄꽃화채를 준비했다. 코스마무리에는 오감으로 봄의 정취를 전하는 '바삭강정'과 '목련차'를 디저트로 제공한다.

발우공양은 한국 사찰음식 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한국불교문화사업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찰음식전문점이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영하며, 예약문의는 발우공양 홈페이지 또는 전화로 가능하다. 김내영 기자

